



순천만정원이 휴식과 치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5일 오후 100만번째 입장객 환영행사(왼쪽)와 같은 날 관람객들로 붐비는 순천만정원.



# 순천만정원 올해 관람객 100만명 돌파



하루 평균 8000명·주말 1만4000명 찾아 4월에만 40만명...한국 대표정원 자리매김

올해 순천만정원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순천만정원 관람객 100만번째 주인공은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입장한 이진희(경기도 성남시)씨. 이씨는 "순천에 처음 왔는데 100만 번째라니 매우 기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1일 평균 6000여명의 관람객이 꾸준히 순천만정원을 다녀갔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일 평균 8000명, 주말 평균 1만4000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이달에만 4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정원으로서 전 국민의 휴식과 치유의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4월은 튜リップ과 철쭉, 유채가 만개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4월 20일 새롭게 단장해 영구 개장한 순천만정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관람객 351만3000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순천만정원은 건강과 치유를 함께 체험하는 건강여행, 시민 아침 정원 산책, 정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과제를 수행하는 '정원 러닝맨' 등 가족과 학생 등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대폭 보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전국 250개

학교와 단체 1만1000여명이 수학 여행지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순천만정원을 찾는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학여행 1번지' 입지를 굳히고 있다. 조종훈 시장은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선봉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100만번째 관람객 돌파는 의미가 크다"며 "이제 순천만정원이 탐방객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있는 정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박선천기자 ejkim@

# 자연의 소중한 배우며 '인생 2막' 열기

목포대 평생교육원 '들꽃 교실' 생태지킴이 양성 인기

평생교육이 사회적 트렌드로 정착되면서 '늦깎이 배움'으로 인생 2막을 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목포대 평생교육원(원장 송재준)은 인문사회와 건강 스포츠,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등 8개 과정에 146개 강좌를 개설,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1800여명이 형성지공(鶴雪之功)이란 뜻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의 자세로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들꽃교실'은 강의실에서의 이론수업과 함께 무안 송담산 목우암 일대 등 야외 수업을 병행해 다른 강좌에 비해 인기가 높다. 주로 꽃 산행과 도시 숲을 탐방하는 야외강의는 동·식물을 직접 보고 느껴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도 가능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이다. 이론수업 커리큘럼도 숲과 생명, 생태 윤리, 포토 트래킹, 식물의 이해, 도시 숲의 이해, 멸종위기식물과 특산식물의 이해, 숲과 건강, 기후변화와 숲 생태계 등

자연생태계와 식물의 이해로 짜여져 흥미롭다. 3학기 동안 누적된 수강생만 100여 명이 넘는다. 대학교수, 교사, 퇴직 공무원, 숲 해설가, 사업가, 회사원 등 직업군이 다양하고 연령대도 3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분포된 게 특징이다. '자연과 친해지면 친구가 되지 못 할 것이 없다'는 motto 아래 이 교육과정은 이끌고 있는 리더는 숲 해설가이자 작가인 황호림(54·목포기독병원 사무국장) 씨. 지역의 산과 숲 사랑을 위해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그는 '라운제나'와 '우리 동네 숲 돋보기' 등 에세이집을 내기도 했다.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식확산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에게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목포대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공모에 응모해 선정된 것이 들꽃교실을 열게 된 배경이다. 이 강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야외 수업을 진행중인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들꽃교실' 강좌.

무심코 지나쳤던 풀, 꽃, 나무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이 인간의 이용 대상물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소규모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수강생들이 사회에 나가 생태계 보존 활동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지킴이 역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수강생들이 하나의 공동된 관심사를 가지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묘미다. 게다가 재수강률이 30%에 달하는 것도 들꽃교실만의 자랑이다. /목포=고규석·김준석기자 yousou@

40대인 김영덕(교육사업)씨는 "들꽃교실을 통해 숲을 만나보니 숲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게 관여돼 있고 많은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됐다"면서 "들꽃들과 나무 이름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환경과 생태, 산림정책 등을 생각할 만큼 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조만간 동호회 형태의 클럽을 조직해 지역의 생태 지킴이로서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김준석기자 yousou@

# 입암산 생태숲 조성 사업 윤곽...사업비16억 투입



목포시 '입암산 생태숲' 예정 부지.

목포시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 윤곽이 드러났다. 목포시는 지난 22일 입암산 생태숲 기본시설계획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생태숲 조성엔 총 사업비는 16억원(보상비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사업은 산림휴양 공간 제공을 위해 자연사박물관과 도자전시관 주변 10ha에 조성되는 생태숲 공원으로, 자연성이 강조되고 시민들의 휴식과 편의공간 설치가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자연소재를 이용한 공간 연출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계절별 개화 수목을 식재해 사계절이 있는 공원으로 꾸며진다. 여기에 친수 공간과 다목적 공간, 커뮤니티 마당, 숲 생태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생태 숲의 컨셉은 '녹지를 감싸고 바

다를 향해 열리며 문화를 향하는, 그린 테라스(Green terrace)'이다. 이날 보고된 종합 계획도에 따르면 생태연못, 에코스테어(생태 계단), 동백원, 향기원, 다색원, 화훼원 등 특색있는 공간들이 다수 조성된다. 이 가운데 향기원은 목서, 서향, 치자나무, 정향나무, 백리향 등 대표적 방향성 수목을 도입해 향기가 나는 공간으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또 에코스테어에는 기존 석축을 활용해 목포시가 운영 중인 생태숲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기구가 설치돼 교육적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목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안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도시가스 공급 신도심까지 확대...두달간 수요조사

목포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벌고 나섰다. 목포시는 그동안 주로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 신도심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원도심 도시가스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범위가 신도심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신항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등 신도심 4개 동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공급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구간별 도시가스 사용신청 세대의 날인을 받아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사업 대상여부를 검토한 뒤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4개 동 54개 구간에 1550세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인근에 대형소방물...시의회, 소상공인 보호 나서

목포시의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무안군이 전남도청 인근 교통요충지에 대형 복합소방물(GS 리테일) 건립 허가를 내줌에 따라 목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지난 22일 무안군의회를 방문, 대형 소방물 입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 자영업 상인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조 의장은 "대형 소방물이 입점하는 곳은 행정구역만 무안일 뿐이지 목포 인근과 다름없다"면서 대형 소방물이 들어선 전국의 자영업 매장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절반으로 떨어졌고, 입점을 막을 명분이 없다면 소방물 입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은 최근 삼향읍 남악리에 부지 6만4922㎡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복합소방물 건립을 허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창사 63주년

##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명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워딩룸!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일만 예상!

웨딩 및 피로한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동찬회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